

“초유의 정치위기 극복 앞장… 국민 신뢰회복에 매진할 것”

국회의장·여야 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어려울 수록 국민 곁에서 일할 것”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려운 민생, 더 꼼꼼히 챙길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절망 늪 빠진 국민의 삶 함께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1일 신년사에서 “우리 국민에게 고단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그 고단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회가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지도부가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광주시민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있다. /뉴스1

과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모두는 유례없는 아픔과 직면했다. 가족과 이웃을 잃은 슬픔, 내일의 희망을 잃은 슬픔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하지만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그리는 마음이 간절하듯 새로운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은 더욱 선명해졌다. 우리는 위기 속에 보여준 위대한 연대, 하나 된 국민의 의지로 다시 일어설 것”이라며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제주항공 참사를 언급하며 “묵은 한해의 어려움을 딛고 기쁨과 설렘이 가득해야 할 한 해의 시작이 온 국민의 슬픔과 애통함으로 가득 찼다”며 “항공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빈다. 형언하기 힘든 아픔을 겪고 계실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제 손을 잡고 울부짖던 유가족분들의 절규가 잊히지 않는다. 이번 참사가 완전히 수습되는 날까지 민주당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며 “절박한 국민의 곁에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겠다”고도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푸른 뱀의 해 2025년 을사년을 맞아 국회와 정당이 초유의 정치 위기를 극복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새해를 맞은 시민들에게 안부와 위로를 건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신년사에서 “어려모로 어려운 때다. 최선을 다해 위기를 극복해나가겠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고단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그 고단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국회가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도, 정치가 할 일도 국민의 삶에서 온다고 믿는다”며 “어려울수록 국민의 곁에서, 혼란스러울수록 국민의 편에서 일하겠다. 더 열심히 뛰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치열한 과정의 한 가운데 있다”며 “특별히 올해는 광복(光復) 80주년을 맞는 해다. 긴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독립의 의지를 잃지 않고 마침내 주권을 회복한 그날의 의미를 되새긴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어려운 민생을 더욱 꼼꼼히 챙기고, 국제정세에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우리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앞

장서겠다. 정부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면서 혼란스러운 국정을 안정시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제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만큼 급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계속된 정치적 혼란은 민생과 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작금의 상황에 대해 국민께 송구할 따름”이라며 사과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정치 복원”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지난해 마지막 날, 여

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민생현안을 다룰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합의했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우리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 당의 화합과 안정을 꾀하면서도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변화와 쇄신의 고삐를 더 단단히 조이겠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무거운 책임감으로 절망의 늪에 빠진 국민의 삶에 함께 하겠다”며 “우리 앞의 비극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윤진식 한국무연협회장



정은진 신세계그룹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허서홍 GS리테일 신임 대표이사

“과감한 혁신 통해 미래성장 토대 다져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경제6단체장

희망·위기극복·통합 한목소리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고비 슬기롭게 극복한 저력 있어”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비상한 시기, 신발끈 묶고 돌파해야”

국내외 정치·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 6단체장들은 2025년 을사년을 맞아 1일 내놓은 신년사에서 희망, 위기극복, 통합을 어느때보다 절실하게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옛 것을 뜯어고치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혁명정신’(革故鼎新)의 결단이 요구된다”면서 “과거의 성공에 머무르지 말고 과감한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토대를 다져야 할 때”라고 독려했다.

그러면서 최태원 회장은 기업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한 장기 전략 수립·실행, 미래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재육성·투자 등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주문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은 “대한민국이 또다시 성장과 침체의 갈림길에 섰다”면서 “하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이보

다 더 어려운 고비도 슬기롭게 극복해 온 저력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전 국가적인 통합과 협력의 정신”이라고 전했다.

경제단체장들은 경제 주체의 하나로써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기업인에게 위기는 일상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비상한 시기가 도래했다면 맞서 싸워 돌파할 수밖에 없다. 신발끈을 묶고 다시 나설 도리밖에 없다”며 맹자가 말한 ‘항산항심(恒産恒心)’을 인용했다.

대한민국 전체 기업의 99%, 근로자의 8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민생 문제도 새해에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우선 과제는 민생경제 회복”이라며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되는 만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제조업, 서비스업, 지방의 공장과 골목시장까지 찾아다니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답하겠다”고 전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대표되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점도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0.1%에 불과한 1만

여 개의 대기업이 전체 이익의 63%를 가져가는 대·중소기업간 과도한 격차가 지속된다면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면서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매년 40만명씩 줄어드는 현실에서 노동시장 개혁이 늦춰진다면 중소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 한국 경제는 더욱 공정해야 하고, 노동정책도 보다 유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 분야를 아우르는 경제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이끌고 있는 손경식 회장은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근로시간제도 유연성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경직된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사관계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점거 금지와 같은 노동 관련 법·제도의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수출도 2025년 화두 중 하나다.

윤진식 한국무연협회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무연환경을 점검하고 수출기업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장 밀착형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기업들, 신년사 미루거나 비공개 조용한 분위기로 ‘을사년’ 시작

유통업계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변화의 파고, 함께 맞서 나서자”

유통가가 예년과 다르게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연말과 연초에 신년사를 발표하던 유통업계가 올해는 신년사를 미루거나 비공개로 전환하며 조용한 신년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이다. 탄핵 정국과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사고로 인한 불안정한 시국을 감안한 결과로 풀이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몇몇 유통업체가 신년사를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발표를 미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그룹은 연말에 신년사를 발표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이번에는 올해 초 신년사를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GS리테일도 조용한 신년을 맞이했다. GS리테일은 올해 신임 대표이사인 허서홍 대표의 신년사를 비공개로 전환, 내부에만 알린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허연수 GS리테일 전 대표이사가 대외적으로 신년사를 공개한 것과 대조적

인 행보로, 올해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예정대로 신년사를 발표하는 곳도 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변화의 파고를 함께 맞서 나가자”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을사년 신년사에서 “우리 그룹이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고객, 시장, 그리고 비즈니스 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시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성장의 동인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규사업 추진에 대한 경영층의 역할도 언급했다. 정 회장은 “각사 대표이사 및 임원은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책무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신속한 판단을 바탕으로 신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영층의 적극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전략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멀게만 보였던 비전 목표를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과 CJ그룹도 2일 신동빈 회장, 손경식 회장의 신년사를 예정대로 발표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